

# CRTC vs. 넷플릭스

■ 권 용 재\*

## 1. 개요

지난 1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미국 기반의 OTT(over-the-top)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는 중국, 시리아, 북한, 크림 반도(Crimea)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190 개 국가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나감에 따라 각국의 방송사업자들은 이를 경계하고 있으며 규제당국 역시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나라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OTT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과, 전통적인 방송법 혹은 통신법에 적용 여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캐나다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넷플릭스에게 가입자 정보, 캐나다 제작 콘텐츠 제공 현황 등 사업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넷플릭스는 이를 거절했다. 이 사건을 두고 캐나다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CRTC가 거대 미디어 사업자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었으며 넷플릭스는 CRTC의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에 도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sup>1)</sup> 본고는 넷플릭스의 캐나다 방송시장 진출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CRTC와 넷플릭스 간에 분쟁 사례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355, yjkwon@kisdi.re.kr

1) Michael Geist(2014. 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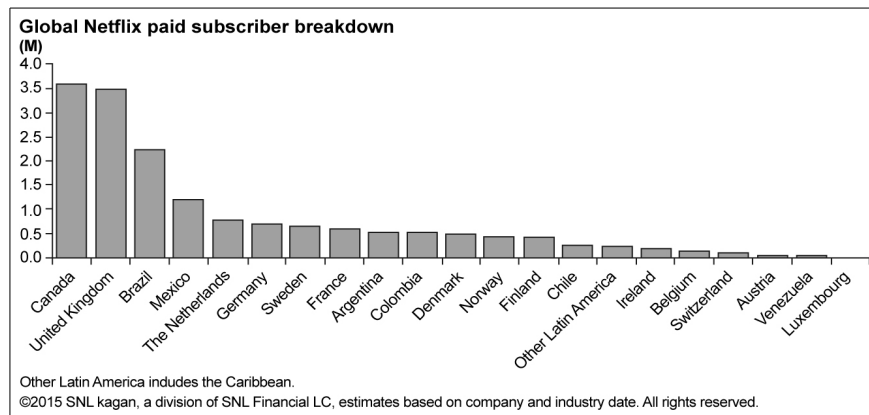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 2. 넷플릭스의 캐나다 진출 및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캐나다는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이며 넷플릭스의 첫 해외진출 국가이다. 넷플릭스는 2010년 9월 캐나다 진출을 시작으로 이듬해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했고, 2012년 유럽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2016년 3분기 주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8,600만 명이고, 그 중 4,700만 명 정도가 자국(미국)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SNL Kagan은 2014년 말 기준 넷플릭스 해외 가입자 중 캐나다 내 가입자는 약 360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sup>2)</sup> Solutions Research Group의 「Quarterly Digital Life Canada Report」에 따르면 2016년 4월 캐나다의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520만 명을 기록, 2015년 6월 41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공표한 캐나다의 전체 가구 수가 1,300만임을 감안하면 넷플릭스

(그림 1) 2014년 넷플릭스 국가별 가입자 현황

(단위: 백 만)



자료: Huffington Post(2015.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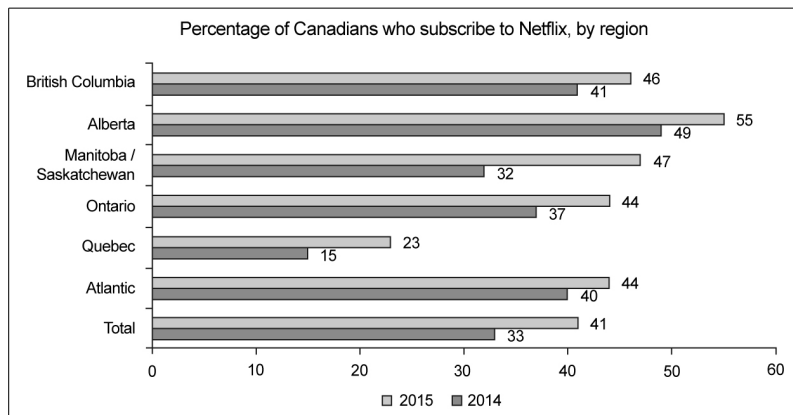
2) Huffington Post(2015. 6. 13)

가입률이 5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입자당 월 9.99달러(캐나다 달러)를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넷플릭스의 캐나다 매출은 약 6.2억 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sup>3)</sup>

한편 Media Technology Monitor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캐나다 모든 지역에서 넷플릭스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어권인 Quebec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40% 이상의 가입률을 나타냈고, 특히 Alberta주는 50%의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sup>4)</sup>

캐나다의 연령대별 넷플릭스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넷플릭스에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모든 연령대에서 넷플릭스 가입률이 증가했고, 미디어 주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18~34세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61%를 기록했다. 35~49세도 46%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65세 이상의 경우 전년대비 4% 증가한 15%를 나타냈다.<sup>5)</sup>

[그림 2] 2015년 캐나다의 지역별 넷플릭스 가입률 (단위: %)



자료: CRTC(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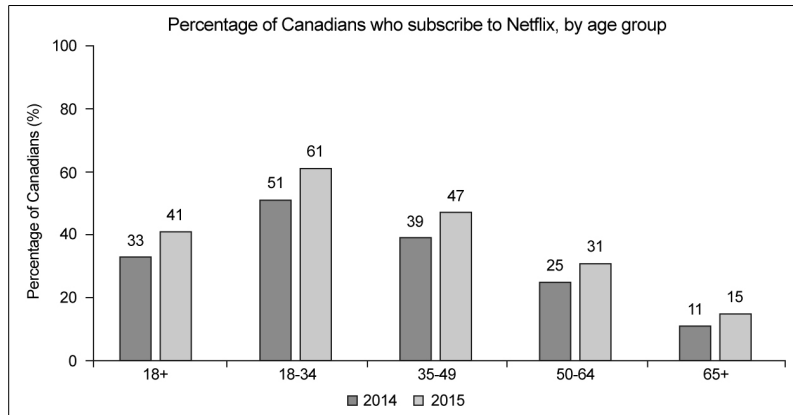
3) Financial Post(2016. 6. 14), CBCNEWS(2016. 6. 15)

4) CRTC(2016)

5) CRTC(2016)

[그림 3] 2015년 캐나다의 연령별 넷플릭스 가입률

(단위: %)



자료: CRTC(2016)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캐나다의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세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2015년 캐나다의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전통적인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4%(약 15만 8천 명) 감소하여 1,125만 명을 기록했다. IPTV가 2015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동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1년 이후 IPTV 사업자들은 가입자 점유율을 늘려왔으며 2015년 220만 명의 가입자로 19.2%의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 위성방송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감소세를 나타내며 IPTV와의 점유율 격차가 2%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유료방송 가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률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2.6%였던 유료방송 가입률은 지난 4년간 4%p 이상 감소하여 2015년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져 78.5%를 기록했다.<sup>6)</sup>

6) CRTC(2016)

<표 1> 캐나다 유료방송 플랫폼별 가입자수 & 유료방송 가입률 현황

Table 4.3.3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s subscriber (thousands) numbers-Basic and non-basic services

Type of service	2011	2012	2013	2014	2015	Growth(%) 2014~2015	CAGR(%) 2011~2015
Cable	7,862	7,701	7,445	7,062	6,707	-5.0	-3.9
IPTV	657	1,003	1,382	1,784	2,165	21.4	34.7
DTH and MDS	2,877	2,826	2,691	2,559	2,375	-7.2	-4.7
Total subscribers	11,397	11,529	11,517	11,405	11,247	-1.4	-0.3

Source: CRTC data collection

Table 4.3.6 Percentage of households subscribing to BDUs

Year	Household subscription rate (%)
2011	82.6
2012	82.8
2013	82.0
2014	80.3
2015	78.5

Source: CRTC data collection

CRTC(2016)

### 3. CRTC vs. 넷플릭스 분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의 전통적인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 기반의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에서 지난 1년간 백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던 CRTC는 2014년 9월 넷플릭스에게 Let's Talk TV<sup>7)</sup> 공청회의 일환으로 가입자 정보, 캐나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현황 등

7) CRTC 주관으로 캐나다의 방송규제 현황을 돌아보고 캐나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청문회 등의 과

캐나다 내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넷플릭스는 이를 거절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CRTC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었으며, 넷플릭스가 CRTC의 OTT 서비스 규제권한에 도전했다고 보도했다.<sup>8)</sup>

먼저 CRTC의 입장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방송법(Broadcasting Act) 제16조는 CRTC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CRTC가 넷플릭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CRTC는 자료요청의 목적이 'Let's Talk TV 공청회 패널들이 넷플릭스가 캐나다 및 캐나다 이외의 고객에게 비전통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을 통해 캐나다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에서 넷플릭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다.<sup>9)</sup>

CRTC와 넷플릭스간 분쟁 사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넷플릭스가 과연 CRTC의 관할 혹은 규제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인지 여부다. 캐나다 방송법은 방송(Broadcasting)이란 전파 또는 기타 전기통신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의 전송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방송은 CRT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 이 논리대로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역시 CRTC의 관할 대상이며 '방송사'로써 CRTC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sup>10)</sup>

한편 CRTC는 1999년 면제 명령(exemption order) 제정(2009년에 개정)을 통해 "뉴미디어 방송사업자"(new media broadcasting undertakings)를 인터넷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했다. CRTC는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를 프로그램(programming)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간주했다. 면제 명령은 뉴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CRTC가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자료제출 거부는 이를 어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11)</sup>

정을 걸쳐 규제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권용재, 2015)

8) Financial Post(2014. 9. 29)

9) CRTC(2014. 9. 29)

10) Financial Post(2014. 9. 29)

11) Financial Post(2014. 9. 29)

<표 2> 캐나다 방송법상(Broadcasting Act) 방송의 정의

broadcasting means any transmission of programs, whether or not encrypted, by radio waves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for reception by the public by means of broadcasting receiving apparatus, but does not include any such transmission of programs that is made solely for performance or display in a public place

방송이라 함은 암호화 여부에 불문하고, 전파 또는 기타 전기통신수단에 의한 대중의 수신에 위한 프로그램의 전송을 의미하며, 수신은 방송 수신 장치를 이용한다.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이나 전시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전송은 방송에 포함하지 않는다.

Broadcasting Act(1999)

면제 명령은 일부 온라인(인터넷) 비디오 서비스를 방송으로 간주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했으나, 처음부터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면제 명령 본연의 목적은 규제로부터의 ‘면제’에 있다. 제정 당시 CRTC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방송법의 규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통상적인 방송 규제로부터 면제시켰다. 하지만 CRTC는 넷플릭스와 YouTube 같은 서비스가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 면제 조항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방발기금과 비슷한 개념의 기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Netflix tax로 불리는 기금 프로그램(contributions program)을 설립하기를 주장하였으나 CRTC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CRTC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당시 이러한 규제 변화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사실상 현재 불거진 규제권한에 대한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의무 정보공개는 사소한 규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CRTC가 온라인 비디오 규제 사업에 뛰어 들었다는 점이다.<sup>12)</sup>

이제 넷플릭스의 입장을 살펴보자. 넷플릭스는 자료 제출은 거부했지만 Let’s Talk TV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정책 청문회는 예상 질문들에 대비해

12) Michael Geist(2014. 9. 29)

준비된 프리젠테이션과 충분한 리허설을 걸친 스크립트를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글로벌 정책 국장, Corie Wright의 참석으로 Let's Talk TV 청문회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였다. Corie Wright는 자사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 준비한 메모를 읽어나갔지만 가입자 수, 캐나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현황 등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했다. Corie Wright는 Jean-Pierre Blais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CRTC 패널에게 “우리 서비스에서 캐나다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감안할 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입은 불필요하며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RTC는 그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와 이를 거절했다.<sup>13)</sup> 이에 CRTC의 위원장 Jean-Pierre Blais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자신이 준비한 스크립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정보 공개를 주저하는 넷플릭스에 분개하며 자료요청에 응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규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sup>14)</sup>

[그림 4] Let's Talk TV 청문회에 참석한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 국장 Corie Wright



자료: Financial Post(2014. 9. 22)

13) Toronto Sun(2014. 10. 3)

14) Michael Geist(2014. 9. 29)



CRTC가 이런 규제 위협을 통해 빠른 자료제출을 기대했다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 진다. 넷플릭스는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online video services)에 대한 CRTC의 규제권한 자체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Corie Wright는 청문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점을 강조하며 넷플릭스는 일반적인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방송법상 CRTC는 넷플릭스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sup>15)</sup> YouTube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 역시 CRTC는 자신들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을 캐나다 내 방송사로 간주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반박했다. 캐나다의 Financial Post는 사실상 넷플릭스는 물리적으로 캐나다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소유한 자산도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사업은 캐나다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sup>16)</sup>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법학 교수인 Michael Geist는 만약 CRTC와 넷플릭스간 분쟁이 법정까지 간다면,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이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승부처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sup>17)</sup> 방송법은 실시간 방송(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는 유선 네트워크)과 주문형 방송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전송으로 정의되어 있다. CRTC는 개인에게 전송되는 주문형 서비스를 공공에 대한 전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inancial Post는 CRTC가 방송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고 스스로에게 소유해서는 안 될 관할권을 부여한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8)</sup>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자료 유출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orie Wright는 청문회에서 CRTC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세어나가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사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sup>19)</sup> Corie Wright가 CRTC에 제출된 기밀정보가 경쟁사에게 유출되는 것을

15) Michael Geist(2014. 9. 29)

16) Financial Post(2014. 9. 29)

17) Michael Geist(2014. 9. 29)

18) Financial Post(2014. 9. 29)

19) CBC News(2014. 9. 19)

걱정하며 규제당국의 정보보안 능력을 의심하자, Jean-Pierre Blais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면제 명령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전통적인 방송규제로부터 ‘면제’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sup>20)</sup>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Rogers(케이블), Bell(위성)과 같은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공평한 규제를 받고 있음을 토로했다. 넷플릭스나 구글과 달리 캐나다의 방송사업자들은 할당량의 캐나다 콘텐츠를 제작/제공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방탈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매출의 일부분을 캐나다 미디어 기금(Canada Media Fund)에 기여해야 한다. 2014년 하반기 당시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Rogers와 Shaw는 공동으로 Shomi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미국 경쟁사들은 피해갈 수 있는 규제를 자신들만 받게 된다면, 미국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위축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Rogers의 대변인, Patricia Trott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동등한 대우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가 규제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비슷한 서비스 역시 규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sup>21)</sup> 퀘벡주의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Quebecor Media Inc.는 만약 CRTC가 전통적인 케이블사업자들의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조만간 넷플릭스는 캐나다 최고의 방송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22)</sup> 한편 Michael Geist는 넷플릭스와 구글과 같은 사업자의 우려는 CRTC가 요청한 자료공개가 추후에 결국 프로모션 규제, 캐나다 콘텐츠 할당 규제, 캐나다 미디어 기금(Canada Media Fund) 기여 등 전통적이 방송사업자가 받고 있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sup>23)</sup>

결과적으로 CRTC는 넷플릭스와의 분쟁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CRTC의 사무총장 John Traversy는 넷플릭스와 구글에게 이메일을 통해 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청문회에서 발언, 발표 내용 등을 공식 기록에서 삭제할 것이며 청문회 패널들은 삭제된

20) Financial Post(2014. 9. 22)

21) Toronto Sun(2014. 10. 3)

22) Financial Post(2014. 9. 22)

23) Michael Geist(2014. 9. 29)

자료들을 제외한, 남아있는 증거에 근거하여 규제 개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sup>24)</sup> CRTC의 대변인 Denis Carmel은 CRTC는 방송법이 부여한 고등법원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양사(넷플릭스와 구글)와의 분쟁을 법원까지 가져갈 수 있었으나, 납세자들의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 길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sup>25)</sup> 대신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인 'Let's Talk TV'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넷플릭스와 구글의 의견은 전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CRTC는 이듬해 3월 'Let's Talk TV' 청문회 의견수렴 결과 발표를 통해 규제개선 계획을 밝혔다. 넷플릭스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은 없지만,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와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외국 OTT 사업자간에 규제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CRTC는 일정 시간 캐나다 콘텐츠를 방영해야 하는 캐나다 콘텐츠 할당 규제와 장르 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Shomi와 CraveTV 등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 중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별도로 자사의 케이블/위성 방송, 인터넷 가입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가 받고 있는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안했다.<sup>26)</sup>

## 4. 결 어

본고는 미국 기반의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와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CRTC간에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난 2014년 9월 CRTC는 넷플릭스에 가입자 수, 캐나다 제작 콘텐츠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넷플릭스는 관할권 위배,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주요 쟁점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24) CRTC(2014. 9. 29)

25) CBCNEWS(2014. 9. 29)

26) thestar.com(2015. 3. 12)

사업자의 온라인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과연 캐나다의 방송법에서 정의한 방송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당시 CRTC는 넷플릭스와의 분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Netflix tax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보수당이 작년 선거에 패하고 자유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함에 따라, 해외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캐나다 미디어 기금과 부가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 분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넷플릭스의 베이스캠프인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넷플릭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 감소를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전통적인 미디어업계의 경계가 심해지고 상황이다.

OTT와 같은 뉴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적 비대칭성, 방송의 범위 및 정의 등의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CRTC를 비롯한 각국의 방송통신 규제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뉴미디어 서비스와 각국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전통미디어 서비스 간에 조화, 경쟁, 융합을 통한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권용재 (2015), CRTC의 유료방송 요금규제 동향: Pick-and-Pay 옵션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2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BCNEWS (2016. 6. 15). "Netflix now has more than 5.2 million customers in Canada, report suggests."

\_\_\_\_\_ (2014. 9. 29). "CRTC to Netflix: Since you won't co-operate, we'll ignore you."

\_\_\_\_\_ (2014. 9. 19). "Netflix tells CRTC consumers should vote with their dollars."

CRTC (2016). 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 2016

\_\_\_\_\_ (2014. 9. 29). Broadcasting Commission Letter Addressed to Corie Wright(Netflix).

Financial Post (2016. 6. 14). “Netflix lands over a million new Canadian subscribers in less than one year: report.”

\_\_\_\_\_ (2014. 9. 22). “Netflix Inc says no to CRTC order for ‘confidential’ subscriber numbers.”

\_\_\_\_\_ (2014. 9. 29). “CRTC vs. Netflix: The disruptive power of the Internet.”

Huffington Post (2015. 6. 13). “Netflix Should Report Subscription Data, Viewing Habits, NDP, Liberals Say.”

Michael Geist (2014. 9. 29). “CRTC vs. Netflix: Has Canada’s Broadcast Regulator Started a Fight It Can’t Win?”

thestar.com (2015. 3. 12). “CRTC backs off ‘Netflix’ tax.”

Toronto Sun (2014. 10. 3). “Netflix versus the CRTC: Who will win?”